

Best English essays 89

How to go to the movies alone (2)

While you wait for the theater to start admitting customers, buy something hot (hot chocolate) or cold (an iced lemonade), depending on the season. This helps you to calm down and gain composure tha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and appreciate a movie. Besides this simple drink, refrain from buying anything else, like popcorns. Yes, I can see your face protesting. What's a movie without a box of popcorns to crunch on, right? But popcorns are also part of a movie watching with your friends. When you watch alone, they are nothing but a hindrance to your concentration, as well as extra calories to add up to your thighs.

Enter the designated theater about five minutes before the movie starts and find your seat. If you, luckily, are free to choose your seat, then take care to avoid tall heads and smelly socks, which can definitely ruin the whole movie.

Now, the climactic moment that you've been waiting for: Enjoy the movie. Drink in every scene, drink in the melodies of music gushing into your ears, and drink in the flow of every conversation. Pour yourself into the world laid out before you. There are no garrulous mouths to lean over your shoulder and make constant remarks about the characters. There are no meddlesome fingers to jab at your sides and point out some apparent details to you. There is only you. You are alone in that world, free of any disturbances that may interfere with your interaction with the movie. Enjoy each and every moment.

The movie ended, but your "solitary movie experience" is not over. Not yet. If you had followed my advice well, by the time the movie ends your brain must be filled with quite a few ideas jumping around like a hot potato in a hand. Without having these potatoes analyzed and thought over, you would feel unstable and muddled.

Name: Haneui Bae
Grade: 12th
School: 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혼자 영화 보러 가는 법(2)

영화관에서 입장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계절에 따라 뜨거운 (핫 초콜릿) 또는 시원한 음료수 (아이스 레모네이드)를 사세요. 이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필요한 평정심을 갖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사실 것 외에, 가렵 팝콘 같은 것은 구입을 자제하세요. 그래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수긍할 수 없겠군요. 아삭아삭 씹어 먹을 팝콘 한 통 없는 영화가 뭐람, 그런 건가요? 하지만, 물론 팝콘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볼 때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영화 볼 때는 팝콘은 당신의 넓적다리에 열량을 더할 뿐만 아니라, 영화를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영화 시작하기 5분쯤 전에 지정된 영화관에 들어가 좌석을 찾으세요. 운 좋게 마음대로 좌석을 찾을 수 있다면 자세를 너무 곧추세우거나 양말에서 악취가 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전체 영화관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다려온 결정적 순간인 영화감상입니다. 모든 장면에, 귀에 들려오는 멜로디에, 그리고 모든 대화의 흐름에 흠뻑

e세상으로 조기유학 떠나요

■ 온라인 美초등영어 프로그램으로 몰입교육 할 수 있다



심재인(14)양은 6년 전 국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미국 펜실베이니아로 조기유학을 떠났다. 온라인으로 미국 초등학교 과정을 선행학습한 덕분에 현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적었다고 한다. 몰입교육이 강조되는 시대, 부모의 꿈은 자녀를 단기간에 현지 어학연수나 유학을 보내는 것이다. 조기유학이 언어습득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고 기러기 가족, 문화 충격 등 정서적 문제도 초

래할 수 있다. 온라인 몰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조기유학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차일드유 고영길 상무(55·사진)를 만나봤다.

“온라인 몰입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주도 학습을 권장한다. 영어는 스스로 연습해야 실력이 느는 것이다. 현지 학생들이 배우는 미국 초등학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수준별, 개인별 맞춤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고 상무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몰입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anguage Arts(영어)에서는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글 쓰기까지 배운다. 다양한 캐릭터와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꾸며 있기 때문에 흥미를 갖고 배울 수 있다. 수학은 다양한 분야(도형, 측정, 확률, 시계 보기 등)에서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문제가 제공된다. Rhombus(마름모), trapezoid(사다리꼴) 등 새로운 어휘를 익혀나갈 수 있다.

사회과목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

수학·사회 등 매일 새로운 퀴즈 맞춤학습 원어민 발음 듣고 말하기...청취실력 쑥쑥

고, 실생활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미국식 실용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Pollution(오염, 공해)에 대한 수업에서 Air Pollution(공기 오염), Land Pollution(토지 오염), Water Pollution(물 오염)뿐만 아니라 Noise Pollution(소음 공해)까지 가르치고 ‘쓰레기 치우기’ 등 미국 2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책임에 대해서 다루는 식이다.

학습방법은 퀴즈 및 워크시트가 제공되므로 매일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해 나가면 된다. 면대면 접촉이 힘들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은 음성게시판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 읽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다. 문장 단위로 따라 읽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런 발음뿐 아니라 청취 실력을 늘릴 수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이 조기 유학을 100%대 체할 수는 없다. 그래도 현지 아이들과 똑같은 교과과정을 국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점이다. 또한 조기유학 전에 이용하면 아무 준비 없이 떠났다가 부딪힐 수 있는 학습 장애, 정서적 스트레스, 문화 충격 등을 줄이는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고 상무는 설명했다.

몰입교육, 조기유학이 화두가 되는 이유 중에는 현지 것이 좋다는 Originality(オリジナリティ)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에 의미는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학습을 관리해주는 부모나 교사의 도움이다. 온라인상으로 몰입교육 환경이 조성되었다 해도 면대면 접촉을 통해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자극을 제공하는 교사가 함께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동호기자 leedongho@fm.co.kr

열심히 스피쿠스한 당신, 캐나다로 떠나라

실전에 강해지는 전화영어 스피쿠스가 실전경험 쌓으시라고 매달 회원님을 캐나다-로키에 보내드립니다

쉽고 간단한 전화영어로 5월엔 당신이 주인공이 되세요!

SK커뮤니케이션즈가 만든다! 실전에 강한 전화영어 스피쿠스

spicus 1599-0510

이 달에 선발된 양명훈 회원 B코스 수강

- 대상: 스피쿠스 회원 누구나
- 여행지: 캐나다-로키 (1주일간 일급 호텔숙박권 & 에어캐나다 왕복항공권 제공)
- www.spicus.com

본 이벤트는 대한민국 1등여행사 이너투어 HANATOUR, 고객중심의 최고의 서비스 AIR CANADA, 알버타 관광청이 후원합니다

빠져보세요. 당신 앞에 펼쳐진 세계에 자신을 쏟아 부어보세요. 여러분의 어깨에 기대어 등장인물에 대해 끊임없이 수다를 떨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리를 찢러 뺀 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영화와 교감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즐기세요.

영화는 끝났지만 영화 혼자 보기 경험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은 아니지요. 제 충고를 잘 따랐다면, 영화가 끝날 무렵 여러분의 뇌는 손에 든 뜨거운 감자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뜨거운 감자들을 분석하지 않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름: 배하늬
학년: 12학년(고3)
학교: 한국외대 부속외고

당선자 발표

- ▶ 박경옥 (30·국가보훈처) 나이에 비해 수준이 있는 글이었다.
- ▶ 송신내 (32세·한국노바티스) 내용이 재미있는 글이었다.
- ▶ 송진영 (39·국립중앙박물관) 성장과정을 잘 묘사한 글이었다.
- ▶ 이숙진 (24·동덕여대 영어과 4년) 쉽고 간결한 글이었다.
- ▶ 임수현 (28·어학원 강사) 전달력이 뛰어난 글이었다.
- ▶ 이수진 (23·한국파스퇴르 연구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잘 표현한 글이었다.
- ▶ 이선혁 (27·충북대 정밀기계공학과 4년) 마음을 정확히 잘 묘사한 글이었다.
- ▶ 이수현 (28·물리치료사)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글이었다.
- ▶ 이성빈 (19·미국 유학 준비) 10대의 감정을 잘 표현한 글이었다.
- ▶ 이순웅 (41·시내 버스 기사) 현지 학교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

